

지역 소식통

고창군보건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추진

고창군보건소가 3월 8일까지 14개 읍·면을 찾아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 체험교육을 추진한다.

주요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행동요령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술 시 주의사항 △심정지 인식 및 119 신고 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후에는 이수증을 교부한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심정지 발생은 60~80%가 가정, 직장, 길거리에서 발생하므로 자신이 첫 목격자가 될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 교육 통해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풍요와 안녕 기원 축막동 수성당제 23일 개최

부안군은 문화재청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자연유산에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행사로 "부안 축막동 수성당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변산면 축막동 수성당 일원에서 수성당제전위원회가 주관하며, 마을의 어업과 항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개암할미제사(수성당제), 용왕제, 풍어제 등의 종합 제사의식이다.

1974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수성당은 개암할미로 불리는 여신을 모시는 제당이다.

'수성당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날에 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1960년대에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에 복원되어 현재까지 해양 신앙으로 제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부안군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부안군 일원의 다양한 마을에서 민속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과 주민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축제 방향성 제시 '호평'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 축제콘텐츠대상 '특별상'... 축제 감독상 등 총 3개 상 수상

부안군은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가 22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프로그램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는 이전에 없던 참신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돼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 변산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했다는 점을 인정 받아 수상 영예를 안았다.

특히 부안의 오디와인과 더불어 다양한 와인과 함께 지역특산물로 만든 페어링 안주로 즐기는 레드와인페스타, 변산해수욕장의 노을을 보며 즐기는 제즈 페스티벌, 노을이 지며 붉은 하늘에 펼쳐지는 각양각색의 대형 연이 펼쳐는 스카이 갤러리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들이 축제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동일 관광복지국장은 "이번 수상으로 부안 대표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제11회 부안마실축제,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 도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부안군민과 축제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는 특별상뿐만 아니라 축제 감독상, 축제 실무상 등 총 3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급식경비 33억원 지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 개최...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소득증대 기여

고창군이 지난 21일 오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를 열고, 올해 관내 5400명 학생들에게 34억원의 급식경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고창산 원재료를 사용해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간접적으로 군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농어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군의원, 고창교육지원청, 교사·영양교사 대표,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 대표,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대표, 학부모대표 등 학교급식에 관련한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올해 고창군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79개교, 5,452명에게 33억3,900만원의 급식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고창산 원재료를 사용해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간접적으로 군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상현섭 고창군 농촌협력과장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치 구강보건이동차량 교체 등



정읍시는 지난해 확보한 총 1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최신 의료장비 교체에 투입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읍·면 지역의 노후화 된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먼저 갑곡 유정보건진료소는 재축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가능한 구조로 정비했다. 정읍·철보 보건지소는 개보수 공사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환경을 조성했다.

시 보건소에는 최신형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를 설치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다.

구강보건이동차량도 교체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읍시는 지난해 확보한 총 1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최신 의료장비 교체에 투입했다.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공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욱 건강한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한수 부안군의원 "부안군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

부안군의원 이한수 의원은 지난 21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의 미래에 대한 우려 표명과 테슬라 유치에 대한 선제적 노력을 주장했다.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만금 지역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한수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의 문제점과 우리군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새만금 지역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자 새만금 RE100 산단부지로의 변화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테슬라의 공장을 유치하여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두레 부안군의원 "경로당 안전사고 방지책 필요"

부안군의원 김두레 의원은 지난 21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촉구하고 안전 시설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인구의 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낙상 중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사

고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고 특히 경로당은 노인들의 주요 활동 장소 중 하나인데도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경로당 내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를 촉구하며, 이로써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상권활성화 통합브랜드 '오샘보샘' 캐릭터 개발

이학수 시장 "인지도 상승과 상권의 경쟁력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정읍시는 80억원 규모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오샘보샘'과 캐릭터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통합브랜드와 캐릭터 개발에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고 상인과 시민, 관광객 등 약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디자인 전문가 자문과 4개 상권 상인회와 논의를 거쳤다.

을시장 오리숫대 설화), '다다'(월영습지 하늘다람쥐)로 정읍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동물로 표현해 총 4종의 캐릭터를 개발했다.

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브랜드와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통합브랜드와 캐릭터 개발로 정읍살고싶다문상권의 대내·외적인 인지도 상승과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보험료 84% 지원

정읍시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해소를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사업이다. 전국 73중 중 정읍시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배·벼·인삼 등 56종이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팔, 시금치, 배추, 무 4종이 추가됐다. 정읍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체등록과 재배면적 등 간단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장수준에 따라 가입 보험료를 최대 84%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6%만 부담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